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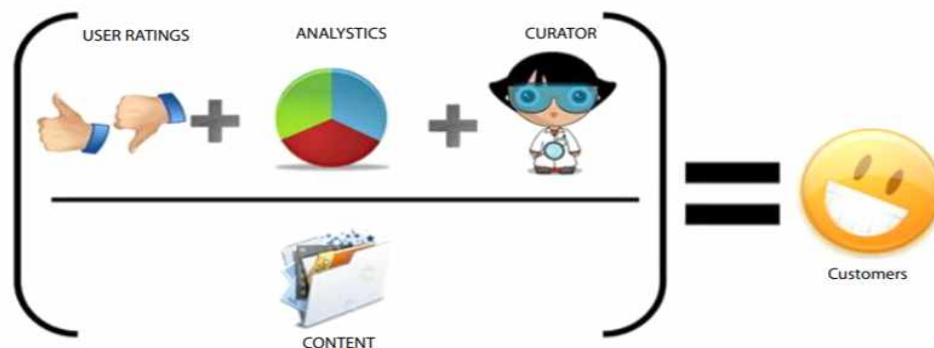
## 1. Why 콘텐츠 큐레이션인가?

### 큐레이션의 다양한 정의

큐레이션 curation은 ‘보살피다’라는 curare에서 유래된 단어로 지금까지는 주로 미술계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미술관**, 박물관 등의 소장작품을 해석 및 전시, 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큐레이션이라고 하며 미술관 등에서 우수한 작품을 뽑아 전시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획자를 큐레이터라고 부른다.

그동안 주로 미술계에서 사용되던 큐레이션 curation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시작한 배경은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생성 주체가 다양해지고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카오스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주로 미술계에서만 통용되던 큐레이션 개념을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제 다양한 문헌에도 큐레이션 개념을 미술이 아니라 정보의 선택적 수용을 위한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지칭하고 있다.



※ 출처 : 스카이라이프 블로그

큐레이셔니즘의 부상 curationism

미술관 큐레이터는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함으로써 전시된 전체 작품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구성한다. 즉, 큐레이터의 주된 역할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던 아름다운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하나의 작품에 불과했던 것을 연결 및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큐레이션 중요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14년 데이비드 블레이저 David Blazer(미술가 및 작가)는 『큐레이셔니즘 curationism』을 발간했다. 이 책은 ‘큐레이션’ 개념이 미술계를 넘어서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도 적용 가능한 상황에 주목하며 큐레이터 역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설명했다. 단순히 작품을 수집, 분류 및 전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외에도 『큐레이션 curation』의 저자 스티브 로젠바움은 큐레이션을 ‘인간이 수집, 구성하는 대상에 인간의 질적인 판단을 추가해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큐레이션의 시대』의 저자인 사사키 도시나오는 ‘이미 존재하는 막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유용한 정보를 골라내어 수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큐레이션을 정의하고 있으며 『큐레이션 curation』의 저자 마이클 바스카는 큐레이션을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힘’이자, ‘선별과 배치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것만 가려내는 기술’로 정의하였다.

### 큐레이션 정의로 살펴본 공통적인 의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큐레이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큐레이션’이란 단순히 자동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찾아 분석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남과 다르게 참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 큐레이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큐레이션을 정의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